

# 광주의 '테크노밸리' 도심 융합 특구 후보지 3곳 선정

시, 북·서·광산구 1곳씩 국토부 제출  
광주·부산 등 5개 광역시 물밑 경쟁  
정부 연말내 1~2곳 선도사업지 선정

광주시가 지방 대도시에서 경기 성남시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처럼 산업, 주거, 문화 인프라를 갖춘 도심 융합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특구 후보지 3곳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경쟁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북구, 서구, 광산구 1곳씩 모두 3곳의 후보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시는 이 가운데 1, 2순위 후보지를 선정해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다시 지정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 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예정지를 선정할 때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등을 지자체로부터 보고받은 뒤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상지역에서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면 규제지역으로 묶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도심 융합 특구는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방 5개 광역시 도심에 조성되는 혁신 공간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창업·벤처 기업을 위해 만든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모델이다.  
정부는 연말내에 1~2곳을 선도 사업지로 선정하기로 했으며, 광주를 포함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가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  
이번 선도 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시장을 두고 해당 광역시마다 특구가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2022년 초에는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3곳의 장단점,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광주가 선도 사업지로 선정돼 도심 융합 특구 선행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없는 청정전남 다짐 AI·ASF(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실천 다짐대회가 10일 오후 강진군 군동면 강진가점소독시설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한중 도의회 의장, 이승욱 강진군수,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농가 등 참석자들이 AI·ASF(아프리카돼지열병) 없는 청정전남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GGM 박광태 대표 "행정사무감사 출석 않겠다"

"출석 요구 먼저 양해 구했어야"  
시의회 "불응 시 행정처분·예산 삭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은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0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GGM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는 시민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기본이다. 그렇지 않고 (증인 출석 안을) 의결하는 것은 시민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카진흥원 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에 물어야 할 사안이다. GGM은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GGM 박광태 대표와 박광식 부사장이 민간인(시민) 신분임을 들어 출석 의무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회는 광주시 출연기관인 그린카진흥원이 GGM의 1대 주주인데다 GGM이 진흥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인 점 등을 들어 출석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회는 이들이 불출석하면 광주시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요구하고 행정사무조사, 출연금 삭감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GGM은 지역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율 62.3% ▲지역 근로자 공사 참여율 68% ▲지역업체 장비 사용 91% 등의 통계를 들며 반박했다. 시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 열람이나 제출요구 권한은 오직 주주에게만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 "항의 논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사퇴하라"

광주시의회 촉구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 감사가 끝난 뒤 의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한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최연주(65)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

고 최 원장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남 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후 최 원장이 준비 소홀 등을 지적한 일부 산견위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로 전화를 걸어 '그만 두겠다'는 등의 '항의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항의가 끝난 뒤 박 의원 등 일부 의원에게

계 "답변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왜 인격 모독을 하나. 사표내면 그만이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산견위 소속 시의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까지 전화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견위는 이날 오전 행감을 중단하고 최 원장과 함께 이용섭 시장에게도 사과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의원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오는 19일 분회장에서 사과할 예정이다. 산견위는 이 시장이 수용하자 오후에는 감사를 재개했다. /최권원 기자 cki@

## '오염물질 조작' 여수산단 대기업 책임자 증인 소환

13일 동부지역본부 행정 감사  
도의회 "후속조치 이행 등 추궁"

지난해 4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으로 지역 사회 공분을 불러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업 지역책임자(공장장)들이 줄줄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처지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여수산단 주요 기업 지역책임자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도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기업 측 인사는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첨유화학 등 여수산단 입주 5개 기업 공장장이다.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과 전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역민 건강권과 환경기본권 보장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기업 지역 책임자들을 감사 증인석에 세우고, 환경 개선 노력 등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사태 이후 구성된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제시한 주민건강 협력조사·감시센터 설치 등 권고안에 대한 기업 측 입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정희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여수6)은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한 여수산단 일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이후, 기업들이 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대한 기업체들의 견해는 물론 민관거버넌스 및 시민단체 입장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 51번째 협약

이글루시큐리티 AI 보안분야 협력

광주시는 1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 유치기업인 ㈜이글루시큐리티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51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인설립 및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1999년 11월 설립돼 통합보안관리, 보안관제서비스, 보안 컨설팅, 융합보안관제 솔루션 개발 등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보안 분야 전문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보안관제 오랜 경험과 빅데이터 활용 역량이 집약된 통합보안관리솔루션(SPIDER TM)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 보안관제 솔루션(SPIDER TM AI Edition) ▲IT 자산관리와 보안 취약점까지 자동 진단하는 보안진단자동화솔루션(Smart[Guard]) ▲중합모니터링 감시를 통해 홈페이지 위변조 발생을 탐지하는

웹페이지 위변조 모니터링 솔루션(WEBMON) 등이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이글루시큐리티는 광주법인 및 지역사무소를 설립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분야 인재육성과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정책 자문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및 지역사무소 설립 추진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이사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인재 확보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광주시와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및 우수 인재 발굴에 속도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062) 605-1115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56	
		성경연구학과(Th.M.)	10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코칭심리학과(D.Psy.)	7	
	석박사통합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14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15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 전형일정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 원서접수: 2020. 11. 17(화) ~ 25(수)  
· 전형일: 2020. 11. 30(월) 오후 2시 30분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 원서접수: 2020. 11. 30(월) ~ 12. 9(수)  
· 전형일: 2020. 12. 11(금)/12(토)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